

칼럼



장기채 주필

한가위와 구분철학(九分哲學)

“까치들이 울타리 안 감나무에 와서 하기도 전에 무색웃에 땀기꼬리를 늘린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쓰다듬어 기뻐서 날뛴다. 고개가 무거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들판에서는 마음 놓은 새 떼들이 모여들어 풍성한 향연을 벌인다.” 소설 '도지(박경리)'에 나온 추석 풍경을 묘사한 글이다.

여름내 끊이지 않고 비를 쏟아 부은 하늘이 청명하다.

그만큼 푸르르다. 햇살도 따갑다. 힘들게 여름을 버텨온 황금벌판... 벼들도 뒤늦게나마 햇살을 더 받으려는 듯 키를 쑥쑥 높인다.

한가위에는 굶주리는 게도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이 아니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참으로 경감이 넘치고 풍요로운 말이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하니 곳간에는 곡식으로 넘쳐나고 여름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한 가을 바람이 어루만져 주는 까닭일 것이다.

늦더위는 아직도 사그라질줄을 모른다.

그런데도 추석은 벌써 코앞이다. 물가는 천정부지이고 코로나 19 사태로 힘든 시기에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어렵기만한 경제에 선물꾸러미가 가벼워질 고향길, 그만큼 발걸음은 무겁기만 할 것이다.

그래도 돈보다는 정(情) 때문에 오가는 한가위 귀향길은 너나 없이 살갑기만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팔월 한가위야말로 일년 중 가장 풍요로운 날이요, 설과 더불어 큰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또 우리네 세시풍속의 하나로 '아홉차례'라는 말이 있었다.

이처럼 심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금만 모자라게 사는 구분철학(九分哲學)은 우리 한국인이 터득하고 살아온 처세철학이다.

밥은 배불리 먹지 말고 세력은 남김없이 부리지 말며 맑은 하고 싶은 대로 다하지 말고 복은 남김없이 부리지 않는 것이 화를 멀리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인생에 있어 욕심이나 돈, 권력, 명예 등을 적정한 선에서 자제해야지 가득 채우려 하면 무(無)로 돌아간다는 구분철학의 구현인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올 추석은 그리 즐겁지않은 않을 것 같다.

어르신들에게는 더 없이 쓸쓸한 추석이 될 것이다.

더구나 조리된 음식을 구입해 건성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모습은 일반화 되자 오래다.

아예 차례를 지내지 않거나 간소화하는 경우도 흔한일이 되어버렸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모임이 돼야 할 벌초도 대행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을 실감하면서 우울한 명절을 맞이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더도말고 덜도말고 자식을 얼굴이나 봤으면..." 하는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올까.

추석을 앞두고 극명하게 대비되

는 두 얼굴이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비극이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때 1500만원 짜리 와인 선물세트가 백화점에 등장했다.

한병에 1200만원하는 양주도 백화점에서 팔렸다고 한다.

최근에는 1000만원이 넘는 프랑스제 가방을 사기 위해서 거액의 선금을 내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일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참으로 부황터지는 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있게 마련이지만 추석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그 격차가 더욱 커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자제하고 겸손해야하는 쪽은 부유층과 사회 지도층이다.

어찌든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줄고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아직도 그 꼬리가 남아있어 올해 추석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명절이 될 것 같다.

올 추석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

부유층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을 안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살펴보면 서운 가족이 함께 모여 보름달 보며 즐거워 하고 감사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사설

'무늬만 고속철' 전라선, 고속화해야

'무늬만 고속철'로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이 고속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과 전북 자치단체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뒤늦은감이 있지만 이번엔 반드시 성사되었으면 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전국에서 건의한 17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12월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한다.

사실 전라선은 지난 2011년 고속화로 KTX 운행이 시작됐지만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호남선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호남선의 대표격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15년부터 전남도를 비롯한 동부권 3개 시 행정협의회(여수·순천·광양)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라선은 경부·호남선에 비해 저속전철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여수·순천권 해양관광객 등 연간 방문객이 2017년 2797만명에서 2019년 3484만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광양만권 산업단지도 연 10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어느 때보다 수도권과 거리 단축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동부권 행정협의회, 전라선권 KTX협의회 7개 시·군(전주·남원·곡성·구례·순천·광양·여수)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를 반영하도록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전남도는 자체 사전 타당성조사 등을 통한 개발논리 당위성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동부권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김희재, 소병철, 서동용 의원이 건설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 각계 각종의 역할을 결집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이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라선 고속철도가 추진되면 전남·북은 물론, 경남 서부지역 주민들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된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각급 기관단체는 역량을 결집해 국가계획에 포함되도록 힘쓰기를 촉구한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화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땐 이렇게 하세요

최근 건강과 힐링을 위해 가족 또는 산악회 단위로 인접 산책로나 전국의 유명 산을 찾아 등반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도심의 찌든때를 벗고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좋은 사람들과 같이 걷는 등산은 분명 낭만적이고 잊지 못할 한편의 추억이 될 것이다.

반면 종종 전국에서 야산에 묻혀 있거나 공사지역 땅속에 묻혀있던 녹이 슬어있는 포탄, 실탄 등이 등반객들에 의해 발견되거나 공사중 발견되었다는 뉴스 또한 나오고 있어 폭발물에 의한 피해방지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기지역에서 종류를 알수 없는 폭발물이 터져 낚시꾼이 인명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바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때론 농민들이 영농철 논밭을 경작 중 오래된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해안가, 산악지대 등에서 노후화된 폭발물이 발견되면 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작 문제는 이들 폭발물 상당수가 6.25전쟁 당시 사용된 녹이 슬고 오래되어 노후화된 불발탄 물체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강한 열이나 미세한 외부충격에도 쉽게 폭발할 수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이다.

고로 아무리 노후화된 폭발물 의심물체라도 뇌관이 있을 경우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 일지라도 해당 물체를 호기심에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을 알아야 한다.

일상생활 또는 등반 중에 이들 폭발물 의심물체를 발견하였을 경우 절대 만지거나 총격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과거 6.25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거나 부대 주둔지 또는 군부대 사격장, 훈련장 이었던 곳에서의 출입 및 활동을 자제하고 만약 불발탄 등 의심물체를 발견하였다면 일체 접근을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곧장 신고해줄길 당부드린다.

김덕형·장성경경찰서정보보안과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엔프레스